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빼기의 삶은 자신을 망쳐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기가 어디 인간뿐이겠는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그렇다. 무리가 있을 때 서로 지지할 수 있다. 기러기를 봐보라. 그 머나먼 시베리아 벌판에서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온다. 동절기가 지나가면 다시 떠난다. 이렇게 오가면서 엄청난 무리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기력기력'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지지해준다.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오갈 수 있는 것이다.

식물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종끼리 군락지를 형성한다. 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사회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사를 보면 자꾸 빼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아우성치는 것 같다. 더하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다. 이합

집산의 총본산인 그들은 자기 또는 아류가 아니면 무조건 배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빼기의 정수를 보는 듯하다.

아류 역시 마찬가지다. 조금만 수가 틀려도 빼버린다. 참으로 저분한 삶이다. 거대 아당의 대표를 봐보라. 하는 것이 마치 남마주이 같았는가. 괴물 같기도 하고 누가 미워하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옆치도 코치도 없는 듯하다. 주구에서 나오는 대로 뺄어낸다. 격이 없다. 추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그를 백안시해도 안하무인적인 것 같다.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참으로 가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또 다른 아당의 대표역시 마찬가지다. 속이 너무나 비좁다. 욕심으론만 팽팽 통친 것 같다. 대범함이 없다. 반대파가 보기 싫으면 아류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뭉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도 욕심이 많기에 좁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을 할 때 모든 당권을 몰려주고 정치포기선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시 정치를 하고 싶어 재계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당을 몰려받은 대표가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당을 구성했다. 그것이 바로 새정치국민회의다. 그런 대범함, 때로는 앓을 줄도 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대통령까지 된 것이 아닐까.

대통령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고로 거물 정치인이 되려면 폭이 넓어야 한다. 그리고 높아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꼬박꼬박 속에서만 온존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미워해서, 다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빼내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겠는가. 결국 자신 혼자만 남지 않았는가. 왜 그리도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가. 남의 몸에 붙은 재만 닦고. 오히려 애제로다 빼기의 삶을 살아가면 자신이 힘들 때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그래서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 빼서라기보다는 타인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을 하지도 받지도 못한 채 항상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빼기의 삶은 초라하다. 때로는 더하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들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인생에 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하기의 삶을 살았다. 예수, 마호메트, 공자 등등. 때문에 엄청난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도 그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소탐대실하지 말자.

社說

소방차 진입이 우선이다

올해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다뤄진다는 골든타입 논란은 다소나마 수그러들 것 같다.

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출동 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가 꼽혔던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관련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를 통해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일어내기' 등의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소방당국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파손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현장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기고

김도연 화순소방서장



노인요양병원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통계청의 인구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3%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며, 2025년에는 20.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 하나가 노인요양병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는 모두 58개소의 노인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현저한 결함을 가진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안전 시설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8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들은 소화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수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인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자위소방대의 미숙한 화재 대처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병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소방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예찰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특별점검, 자위소방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합동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

우리 화순소방서에서도 노인요양

양병원 13개소에 대해 최단 소방출동로 숙지, 고가사다리차 부서 위치 확보, 인근 소화용수 점령 및 급수체계 확립, 전 직원 요양병원 내부구조와 비상구 등 파란통로 사전확인을 통해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인 분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건축물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입인 '5분' 내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참병인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축물 내부에 초기 진화 및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평소 사용자나 소방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관리하고, 요양병원 내에 상주하는 자위소방대원들은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본능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 화재예방의 선제적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믿는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曦 暉 朗 耀

曦 暉 朗 耀

曦 暉 朗 耀

▷ 뜻: 태양빛과 달빛은 온 세상으로 비추어 만물에 혜택을 주고 있음.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문화응성' (Munhwa Eungseong) featuring two elderly people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 our positions?).